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한국인문 형성
민족 복음화
전체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6: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12)

대한예수교총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52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2003년 신년 메시지 - 주는 믿음(Giving faith)

1부 예배 9시 · 2부 예배 11시 / 제직들은 1부 예배를 드려주시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행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기도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 난자를 기도하여 좋아졌다고, 배우자 주시기를 기도해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아기를 얻어서 기도해서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고, 경제적 어려움을 간구함으로써 돈을 받게 되었다고, 때로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자 기도해서 마침내 합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생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기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축복이 어떠한 종류의 축복인지 더욱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믿음을 정화하게 간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믿음은 세상적인 물질이나 돈, 위선, 그리고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둔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아름다운 영적인 생명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유해진 가난한지, 결혼했던 미혼이던, 또는 건강했던지 약화된지, 행방불민지 불행한지, 그리고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지게 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언 18:16을 보십시오. "천물은 그 사람의 길을 그렇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양로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주는 믿음을 받는 믿음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고자 기도한다면, 확신하건대 그것은 정말로 곤란한 기도입니다. 진실로 참된 믿음의 실천,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자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히 11장 33조). 달리 말하자면,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망하기만 한다면,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리어 그분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이 바로 믿음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십자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무엇인가를 줄 것을 기대하거나,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가난하고 행방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무엇인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사랑으로 자신의 의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취하신 것일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주고 하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중심적이 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장막이 아닌 십자가 중심입니다. 진실로 때가 이르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앞 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불에 들어가 될 것이며, 모든 세상의 영광은 불에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전 3:14-15).

월과 요일과 그날들 / 12월 27일 금요일

IV. 만국에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심

4. 다른 예언서에서의 열방을 향하신 이스라엘의 선교

요엘 - 요엘 선지자는 주전8세기 중엽의 유대인의 '요엘'의 시대에 기록된 예언을 전한 선지자이다. 특별히 '하느님에게 만민' (all mankind)으로 신을 부르주시 '그 날'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부어주시 범위의 광대함을 보여주는데, 연경 계층(영역)이나 성별(성별)에 제한되지 않으며, 심지어 28년을 미치는 남종(남종)이라는 부류까지 포함하여도 그 범위를 온 만민에 적용시킨 것이다(요엘 2:32). 한편 요엘 2장 28에서부터 요엘 2장 32에서 사울만 나라라는 용어는 구약의 다른 문헌에서는 '우주적인 범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창 1:7, 민 15: 4, 48:20). 그러므로 복음의 전파는 하나의 선교적 범람은 당연히 이루어진다.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민 24: 1, 골 2:14, 골 3:1).

이사야 - 이사야 선지자는 약 750년 전의 유대인 선지자로서 예언을 담고 있는 구절은 요엘 9:11 절~12:28절, 13절에 나타난 '그 날'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선교적 범람은 나타내며, 무릇 21 대의 집을 다시 세울 때를 나타내며, 예언의 남은 자-만국 그 모든 땅이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게 될 날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래는 '우주적인 민족주의'로 확장될 것이며, '하느님'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문해해결하기 위하여 '요엘'의 예언을 언급하였다(골 3:14).

미가 - 미가는 750년 전의 421~435년경 동서로 두 열방이 여호와와 기쁨의 산으로 물러나는 복음의 이름으로 전파를 맡고자 한 것이다. 33장 5절~62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장래는 장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모든 열방을 향한 복음의 확산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셨다(눅 24:45~49).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기록하였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발견하게 되며, 인간의 영광과 뜻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담대하고 용감하게, 심지어 필리피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단지 '고린도후서'에서 오직 한 가지의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이 발견될 뿐입니다. 바울이 땅에 걸리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마저도' '네 온애가 네게 족하다'라고 기뻐하셨습니까(고후 12:9).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산양성경에 나타난 믿음은 배우는 믿음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가난했고, 흠여졌으며, 오래도록 집이 없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세상 곳곳에 나누어 주었고, 세상을 영적인 부유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영원한 소망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소망의 눈을 밝히면, 한 천지를 목에서 이끌어 내며 복음에 차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사 42:7). 모든 인간의 본성은 어둠과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달한다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고 하려고 계십니까? 바울은 갈로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שראל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이 죄사상에 매한 바 되었도라'(행 28:20). 어떤 다툼 역시 주님의 소망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와 함께 살게 될도다'(사 27:3). 여러분은 이 세상의 부귀와 정치적권력이나 영리한 영광의 소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이들을 치료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금'은 없었다, 성전 문에 있는 앞 문지방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였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시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라' 말과 팔꿈치를 곁을 인교(행 3:6~7). 분명히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 인간은 질병과 고생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질병과 고생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겪게 되는 고��으로 인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는 믿음은 생명의 회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믿음을 베풀고 계십니까?

주는 믿음(giving faith)은 기쁨을 나누어 줍니다. 이 세상은 죄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상은 요망되었고, 인간의 영혼은 더럽혀졌으며, 심지어 교화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어떻게서 부르짖습니다. "주하고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민 11:29). 이 믿음은 진실로 놀라운 기쁨입니다! 배아나자부터 다리가 끊어지고, 장애하고 하려 한 사람들에게 구원하려고 왔으며, 질병 때문에 성전에 조차 들어갈 수 없어서 바깥에 앉아 있었던 가난한 병자행복히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행위를 믿음을 얻어 세웠고, 그로 하여금 장애하고 하려 하도록 성전 안에서 간제 했습니다. 어떤, 이것을 주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베푸십니까?

(산티아고 메시지 중에서)

이사야 - '이사야' 선지자의 선교적인 강도는 앞에서 살펴본것보다, 언급되지 않은 다른 부분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12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라는 자식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다(이사 11:1~9). 두 번째는 19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라는 자식을 사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우하신 것이다(이사 19:21~23). 세 번째는 25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 기록한 선지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와 의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이사 25:7~8).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바빌론'으로 부터 자신을 찾아온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았을(이사 39:1~2, 5~7). 39장은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느님의 종인이 되는 일에 이스라엘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실패)로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죄로 인한 징계의 의미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제로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하다. 이것이 이사야 40:28~48:2, 56:1~66:2의 중심 사상이다.

예레미야 -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역시 33년 177세에서 유대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모와들 돌아와서 예언하였다. 예레미야는 세기 7년 177세에서 유대인 기쁜 이방이 되어 참으로 위망지할 것이라(예레미야 33:9). 그러나 이스라엘이 선교를 계속할 한다면 이들은 모와가 되어서 종인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소피아 - '소피아' 선지자는 2장 10절~11절과 8장 20절~23절에서 '일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일하고 있다. 14장 16절~19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중국에서 온 자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결론

이스라엘은 십자가 모든 행동을 통하여 종인의 역할을 계속 부활(부활), 뿐만 아니라 택한자를 받은 모든 자들 또한 종인의 종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열방을 위한 것이요 만민을 위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방의 범람은 제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만민에게서 배척되고 결국 두 번째로 모와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자의 오산은 복된 소망과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열방들로 하여금 그 소망을 듣게 하는 선교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TODAY'S COMMUNION

(1 Corinthians 11:23-27)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Therefore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the blood of the Lord."

How fitting it is that today is the first Sunday of the New Year 2003 in which we come together for Communion. Every Communion service ought to bring such renewal! Our church joins in this ceremony at least six times a year for all five services. We need to ensure that our practices of this Holy Communion are spiritualistic, not ritualistic. It is a special time that demands our special attention. As such, how do we spiritually partake? We need to go back to the first night that Jesus made this sacrament. We have to rekindle our first love. We have to make this occasion a time for new dedication. The Lord's Table is not a means to salvation. It does not belong exclusively to Choong Hyun. Communion is a time for remembering the life, death, and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Let's consider the essential elements of our reflection.

Communion is a time for looking backward. Jesus instituted this ceremony o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He knew that the cross lay

ahead. He knew that His body and blood would establish the new covenant. We need to remember Christ's death on the cross. We need to remember that "He is also head of the body, the church; and He is the beginning, the firstborn from the dead, so that He Himself will come to have first place in everything. For it was the Father's good pleasure for all the fullness to dwell in Him,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all things to Himself, 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through Him, I say, whether things on earth or things in heaven" (Col. 1:18-20). Amen. Jesus Christ is God's amazing grace. He is the life, the remedy for alienation from God. His cross is our message. All other methods may bring temporary success, but only the message of the cross lasts forever. We may help the poor and less fortunate, we may tithe regularly, and we may live in moral obedience but only the cross of Christ brings salvation. Communion is a time to personalize what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means to you.

Communion is a time for looking inward. At the time Paul spoke today's message to the Corinthian church; they were taking the Lord's Supper lightly. He warned them,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It's imperative that we search our hearts and confess our sins. We need to take the time to repent and breakdown the sinfulness of our hearts. Paul also warned the Corinthian church, "For this reason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sleep." Communion is a serious activity that requires solemn self-examination.

Communion is a time for looking outward. It's God's call to sinners to see the Gospel of Christ's death. Our coming together in remembrance of Christ is itself an evangelistic message. After Jesus took the cross, He rose again, and empowered believers with His Holy Spirit. His great commission says,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ts 1:8). Every communion service should reach out to the lost. Each participant is a witness to Christ's life, death, and resurrection.

Communion is a time for looking forward and upward.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Indeed, we look forward to Jesus Christ's second coming. Definitely, we look upward for that moment of glorious revelation. Our hearts desire is to see our Savior face to face.

Are you prepared to come to the Lord's Table today? Are you now ready to participate in the spiritual blessings of Christ's amazing love? Are you equipped to fellowship with the family of God? The Lord invites you to His table. Please take the time to reflect and remember Him in today's Communion. 🙏

오늘의 성찬식

(고전 11:23~27)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함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김성관 목사

첫성찬의 식탁으로

2003년 새해의 첫주일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다 함께 모이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성찬 예배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례를 일 년에 여섯 번, 주일 낮 다섯 번의 모든 예배 시간에 시행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배를 형식적인 의식(儀式)으로가 아닌 영적인 예식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실 성찬의 시간은 우리의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성찬 예식을 만드시던 첫날 밤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을 다시금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의 새로운 헌신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주의 식탁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은 아니며, ‘충현교회’에만 홀로 존재하는 예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재림을 기억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을 되돌아보며

성찬예식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예식을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십자가가 놓여있었다

사실을 아셨습니다. 또한 자신 몸과 피로 새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18~20)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치료하시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방법들은 일시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영원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메시지뿐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불행한 이들을 돕고, 정기적으로 십일조를 드리며, 도덕적인 순종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찬 예식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의미를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내면을 바라보며

성찬 예식은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의 말씀을 전하던 당시에, 그들은 주의 만찬을 너무나 소홀히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함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27절)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마음을 살피고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회개하여 각자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을 소멸시키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울’ 역시 회개의 필요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30절). 진실로 성찬은 엄중하게 자신을 시험해야 하는 진지한 예식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며

성찬 예식의 시간의 바깥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의 복음에 적당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의 모임은 모임 자체가 바로 전도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그는 다시 사셨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생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위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직 생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모든 회중 예배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회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성찬 예식은 앞과 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26절).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앞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영광스러운 계시의 그 순간을 기다리며 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르는 복스런 소망은 우리의 구주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은 오늘 시행되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교제를 나눌 준비가 갖추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은총에 반응하고, 오늘의 성찬예식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

2003 교회 주요행사

1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겨울성경학교/가을수련회 경로신방 단기선교팀 파송 신년예배(오전9:11시) 성찬식(1차) 장기당회 제8회 전국찬양대원 지도자 강습회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 선교주일	교육 교구회 신교회 예배위 당회서기 찬양위 기획위 선교회	1,2교육위 교, 당, 안, 권 교구회	1~2월 1~2월 반주, 성악 감리리흥

2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겨울성경학교/가을수련회 전반기 장학생 선발 및 저금 경로신방 단기선교팀 파송 장기당회 정치기훈련(1차) 학습세례식(1차)	교육 총원장학회 교구회 당회서기 교육훈련연구원 예배위	교구회 교구회	1~2월 1~2월

3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성찬식(2차) 장기당회 사순절 시작(제외의 날) 공동의회(일문후보위원) 제56기 교시양성부개강 제27기 찬양대양성부개강 임시당회(일문후보위원) 출현전도대 훈련(전반기) 남성구역장 훈련 공동의회(일문후보) 피택자교육 개강	교구회 신교회 예배위 당회서기 성경연구원 교육위 성경연구원 찬양위 당회서기 전도훈련원 성경연구원 당회서기 교육훈련연구원	3~6월 교육위 교구회 찬양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회 교구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26주(9/27)종강	9~11월 97학년도 9/29아

4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장기당회 종려주일(가목연합) 교단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성금요일 집회(성찬식) 부활주일(찬양예배) 학습세례식(2차)	교구회 신교회 당회서기 예배위 예배위 예배위 예배위 예배위	교구회 교구회 찬양위 교구회	3~6월 가브리엘찬양대

5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성찬식(3차) 어린이주일 장기당회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	교구회 신교회 예배위 예배위, 교육위 당회서기 기획위	3~6월 교, 당, 안, 권 주제반표	

6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장기당회 성령강림 특별 금요집회 성령강림주일 장기제직회 정치기훈련(2차) 학습세례식(3차)	교구회 신교회 당회서기 예배위 예배위 당회서기 교육훈련연구원 예배위	3~6월 기획위 교구회 교구회	

7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06	주일	여름성경학교/여름수련회	교육위/각기관		7~8월
		단기선교팀 파송	신교회		
09	수	성찬식(4차)	예배위		
		매추감사절 예배	예배위		
		매추감사절 특별 찬양예배	예배위	찬양위	호산나찬양대
		경기당회	당회서기		

8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여름성경학교/여름수련회 단기선교팀 파송 장기당회 학습세례식(4차)	교육위/각기관 신교회 당회서기 예배위	7~8월 교구회	

9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절기구제 대심방 후반기 장학생 선발 및 저금 단기선교팀 파송 교회설립기념 찬양예배	봉사와 교구회 총원장학회 신교회		9~11월
03	수	장기당회	예배위, 찬양위		97학.9/14일,9/21아
05	금	특별금요집회	당회서기	기획위	
07	주일	성찬식(5차)	예배위		
		교회설립주일(가목연합예배)	예배위		
14	주일	제57기 교사양성부 개강	성경연구원		12주(11/30종강)
16	화	제28기 찬양대양성부 개강	성경연구원		10주(11/18종강)
		제28기 찬양대양성부 개강	성경연구원		12주(11/30종강)
17	수	전도대 훈련(후반기)	교육훈련연구원	전도위	10주(11/19종강)
		남성구역장 훈련	성경연구원	교구	10주(11/19종강)
30	화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	기획위원회	교, 당, 안, 권	

10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장기당회 정치기훈련(3차) 종교개혁주일 학습세례식(5차) 장로/집사/권사 임직예배	신교회 신교회 당회서기 교육훈련연구원 예배위 예배위 예배위/당회	교구회 교구회 교구회 교육훈련연구원	9~11월 외국인장사

11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신년도 예산안 심의 신년도 직분자 심의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성찬식(6차) 장기당회 출현중앙의밤 추수감사주일 예배 추수감사절 특별 찬양예배	신교회 신교회 신교회 신교회 예배위 당회서기 예배위, 찬양위 예배위 예배위	각 기관 각 기관 교구회 신교회 예배위 당회서기 찬양위 찬양위	

12월

일자	요일	행사명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고
		절기구제(성탄) 단기선교팀파송 장기당회 임시당회 특별제직회 은회자(근속자포상) 성탄축하 찬양예배 성탄찬양의 밤 성탄축하예배 학습세례식(6차) 공동의회	봉사와 신교회 당회서기 당회서기 당회서기 예배위, 찬양위 1,3교육위 예배위 예배위 당회서기	결산/예산 결산/예산 인사위, 행정위 결산/예산	

하나님께로

주영혜 (신촌가정부)



요즘 남편은 매일 늦숙가 되어 들어옵니다. 세 직장에서 공장 생산 라인을 업고 레이드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제가 남편에 대해 아는 전부입니다. 그만큼 남편은 말이 없습니다. 초산자인 남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인데다가 피곤함이 겹쳐서 제가 말을 시키면 겨우 답을 하지만 대부분 성의 없고, 자꾸 말을 시키면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라는 말밖에 못합니다. 결국 남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천안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또 한정된 시간에 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워낙에 이렇게 현실에 쫓겨 살다보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런 남편의 신앙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남편이 머리가 아닌 몸으로,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매일 반복되는 기도 속에서 특별한 느낌이 없어 답답했던 어느 날, 버스 타이머가 평크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충분히 대형 사고가 날 상황이었습니니다. 여기서 남편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는 구원요.

내년 4월까지의 여전히 천안에서 일을 할 것이고 앞으로는 많은 시간을 지극천열, 여유 없이 피곤하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니, 저 또한 조조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게 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대합니다.

홀륭한 리더이셨던 예수님

양의수 (신촌가정부)

어느 집단이건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직장, 학교, 교회, 나라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백성들은 들떠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기간동안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기대를 합니다. 리더가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집단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리더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작게는 열두 제자를 이끌었고 많게는 수많은 군중을 이끌었으며 더 넓게는 이 인류와 모든 인간들의 리더이신 분입니다. 그 분은 보이는 것들을 이끌었던 분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양무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의 사명대로, 언약대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작은 자들을 돌보셨고, 육신과 정신이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과 대화하셨으며, 모두들 잠들어 있을 때에도 양과 언약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니다. 정말 홀륭한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분은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아니, 태조부터 앞으로 이를 세상의 끝날까지 그분의 리더십은 끝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 이 능력이 한정된 리더가 아니라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단점이 있었으며 쇠약이었습니다. 무오한 왕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제사장인 것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하는 아내와 아이들, 우리가 양육하는 양무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저 많은 생명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석태임 (집사, 결혼 준비교실 교사)

대학시절, 나는 허무주의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아버지와 관계가 힘들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조용한 강의실에서 터진 회개의 눈물, 놀라는 교수님과 친구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억제할 수 없었던 눈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22년간의 차용으로, 비오는 날 나를 기다리시던 아버지께 고백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버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내렸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가족을,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셨다. 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가족을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저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잠 31:10,30). 가족이 바로 서는 것은 고운 것도 아니요, 아름다운 것도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된 것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나서가 아니었던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꾸며주 가정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가정에 대한 책들을 읽으며 기도하였고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결혼 생활은 평안한 것만은 아니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서는 것은 세미나도 거저 속의 지식이나 나나 나의 모든 자아를 부수며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중, 결혼 준비교실에서 봉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가정을 세우려고 이 곳을 찾는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고후 1:4) 주님을 통하여 나의 넘어짐과 실수가 다른 가정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혼했다가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쉽게 결혼을 포기하는 시대에 결혼히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다. 하나님은 내게도 그러하셨듯이 가정을 통해 계속적인 사랑과 용납을 요구한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사 하나님을 알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요일 4:7,8).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혼의 홍수 가운데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러한 일 가운데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이 천국에서 해갈이 빛나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가정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주님의 형상을 닮아 가는 가정을 세우기를 기도할 것이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중개자

하나님의 선택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사랑을 한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천절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것을 하든지 간에 “너만 죽자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마, 너의 모든 것을 들어주고 풀어주마” 하고 말하는 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풀어주고, 흔네는 부모로부터 숨겨주는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약까지 풀어준다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악을 품고 인정하는 선이 있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잘못된 선택의 정의는 공존과 평화입니다. 인간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들과 싸우지 않고 화합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본능을 일으키는 것, 이방 신과 화합하기를 시작합니다.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싸우지 말고 화합하고요 합니다. 그대야만 고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점점 더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을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당신의 선택으로 천절을 베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선택이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과의 연합을 죄로, 그것도 가장 큰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생각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며 이 문제는 다음 난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편집)

구역탐방길산



구역 탐방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다. 구역 예배 공과 교제는 주일 설교를 토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바, 주일 예배에서 들을 말씀을 구역 예배에서 각 구역장들과 구역원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보는 내용을 취재했었다. 구역원들은 나눔이 없고 구역장만 나누는 구역, 다함께 적극적으로 나누는 구역, 나눔을 마치고 나서 실천 사항으로 직접 전도까지 하는 구역 등 각 구역들이 다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하지는 않았으나 나누는 말씀은 하나였다. 2000년대에는 말씀을 나누지 않고 교제만 하는 구역도 있었는데 2002년도에 탐방한 구역들은 모두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교구의 활성화가 구역예배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구역탐방이 몇몇 교구로 집중되는 현상도 보였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구역탐방 현황이다.

1교구	국기 5, 6구역	총현 2구역	2교구	한양 3구역	논현 3, 4, 6, 7구역
				경복 2구역	삼성 1, 2구역
3교구	영동 2구역	대림구역	4교구	무지개구역	잠원 1, 2, 3구역
5교구	일원 1, 2구역		6교구	문정구역	주공구역
				현대구역	오금구역
7교구	올림픽구역	천호 4구역	8교구	강변우성구역	지창 1, 2구역
				행동 1구역	위귀힐구역
9교구	중계 1구역	신내 1, 2구역	10교구	쌍문 2구역	상계 3, 4구역
	도농 1, 2구역				
11교구	동이촌 1, 2구역	신당 5구역	12교구	강촌구역	북이현구역
				문촌 1구역	성신병원구역
13교구	기암 1, 2구역	김포 1구역	14교구	구로 1, 2, 3구역	개봉 2, 3구역
				한란 1, 2구역	
15교구	심도 2구역	신림 4구역	16교구	안양 1, 2구역	수원 2구역
	동이불천구역	시당 4구역			
17교구	경남장미구역	분당남성구역			

이상 64구역을 탐방했다. 2000년대에는 복음을 나누지 않아서 기사가 되지 못했던 구역도 있었는데 2002년에는 그러한 복음이 한 곳도 있었다.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된 이유도 있지만 구역장 영성훈련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에는 한 해 동안의 구역장 영성 훈련을 정리해볼 것이다. 각 구역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써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체험하기를 바란다.

(권오섭 기자)

✦ 양모실

7교구 성미선 집사(여44세) 왼쪽 귀의 달팽이관이 손상되어 청력을 상실했고, 서서 걷기가 매우 힘든 상태로 퇴원하여 현재 보행 연습 중입니다. 이런 상황은 급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환우와 가족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신앙을 재정비 하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8교구 이종영 성도(여48세) 자궁경부암 수술 후, 암이 엉덩이뼈에 전이되었습니다. 신장이 놀라 오른쪽 다리가 저려서 수술할 예정이었습니다. 폐의 상태가 좋지 않아 그만 두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항암 치료 중입니다. 약해진 체력이 회복되어 치료를 잘 감당하도록, 늘 믿음으로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15교구 공향조 권사(여77세) 당뇨합병증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친 마음이 위로 받고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덕순 집사(여69세) 대장암으로 입원 치료 중입니다. 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6교구 권태문 성도(남78세)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길 가는 순례자」 중에서

시편 126편 - 기쁨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시 126:2).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징후요,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특징입니다. 바울도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을 언급했습니다(갈 5:22-23). 그렇다면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도덕적으로 강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을 살기 위해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길로 행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시편 126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소년한 기쁨이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大事)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한다

시편 126편의 1-3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의 모든 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말한 바 있습니다. 예로부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며 기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며리다(출 15:1-2).

다윗의 인생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게릴라전에 빠져 있던 광야에서의 수년, 사울 왕으로 인한 위태로움 생존, 삼손과 같은 여인의 죄책으로 인한 처절한 기도의 시간, 말년에 아들의 왕위 찬탈로 쫓겨나 마로 정부를 세운 일. 그러나 “여호와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진지시는 자시요”(삼하 22:2)로 시작하는 그의 감사의 노래는 “여호와야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삼하 22:47)라는 확신으로 끝납니다.

또 비바람 포로 아가도 들읍니다. 거리의 약탈, 야수로 돌변한 이웃, 사자 떼장, 포화자들의 통렬한 조소. 이스라엘은 사막이 레우 수 있는 좌익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완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장디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좌익의 사함을 입었느니라”(사 40:1-2).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우물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통지하노라 이는 주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온 들을 뛰노라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이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사 52:7-8).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궁한 것 같았도다”(시 126:1). 기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속(속)하여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아예에게서 검증되고 거듭되는 체험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엄혜원 기자)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장성 성도를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왔던 것이 불교였습니다. 절에 다니며 무엇인가를 얻을까 했지만, 그 또한 세상 것과 차이가 없음을 알고는 방황하다가 세상을 등지고 홀로 조용히 지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고독은 더해갔는데, 저를 위해 기도하던

누님의 눈물 어린 진심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던 날, 5부예배까지 있는 것에 놀랐고, 성도들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그 크신 사랑에 머리를 숙입니다. 새가족부에서 성경을 배우며 한 영혼이 세상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제일 남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 참 기쁩니다. 주님 안에서 맺은 사랑이 변치 않고, 항상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찬양으로 기쁨을 나누며 사는 성도의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숙정 통신원)

♫ 다음 주일 찬송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호레이시어스 보나박사가 쓴 성찬 찬송가이다. 원문은 7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 1, 2, 6, 5절을 택했다. 작사자는 1년에 한 번씩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 자유교회에서 시무하는 형과 보나박사를 찾아가 성찬 예식을 도와 주었다. 1855년 10월 첫째 주일,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영적 체험을 하였다. 그는 성찬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과 마음 속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쁨을 얻는 것을 깨달아 그 감격과 성찬의 진정한 주님을 기찬송하기를 바랐다.

1절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영원한 새 계명을 내리니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의 말기리
2절 주님의 떡을 내기 위하여 주님의 잔을 내기 마시고 군신의 잔을 받아 버리니 죄를 받아 내 내 새 계
3절 주 예수 마로 도움 없시와 주님의 팔에 의지함으로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함
4절 주님의 성찬 받음 때마다 하늘의 기쁨 이미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이 찬송을 부를 때에는 반드시 찬송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사 하나하나를 내 속에서부터 진정한 고백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찬양위원회)

구주께서 오신 날

오수 번 (소년부 전리예반)

또 한 해가 지나간다. 크리스마스는 일년 중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날이다. 크리스마스는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한다. 루돌프, 산타, 양말, 선물 등. '크리스마스는 재미있게 노는 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크리스마스의 밤이 왜 기록됐는지, 왜 크리스마스가 휴일이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지... 크리스마스는 기록한 날이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 죄에 빠져 더러워진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그런 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선물을 생각하고, 산타를 생각하고, 놀 것을 생각하고, 세상물정에 빠져 예수님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라 생각하지 않고, 산타를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연극도 하고, 케케로 부른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아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생각하고, 또 마음 속 깊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우리 크리스천이 되길 바란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성경의 생

로마서(Roma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③

'로마서'를 읽으실 때에는 또한 로마교회의 민족간 문제를 위한 실제적인 이유도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로마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웠습니다. 즉, 로마교회는 오순절의 성령강림 이후,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들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웠던 교회입니다(행 2:10). 그러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던 때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고(행 18:2), 결국 로마교회는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AD. 49-51년 사이). 그후,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유대인 추방령은 폐쇄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교회에 찾아들었고, 이로써 로마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롬 1:5-6, 13, 11:13)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문화적 갈등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구든지 죄인이고 서로 다른 민족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의인이고 하나의 족속이라는 것을 전함으로, 그 갈등의 여지를 소멸시키자고 3차 선교 여행을 한 뒤 중에 이 편지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AD. 56). 즉,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종적, 종교적, 교육적,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서로간의 화목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던 로마교회를 향해서(롬 1:8),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기록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롬 1:15-16).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계속되는 분쟁과 분열이 있었고, 그러한 슬픔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복음이 아닌 세상의 문화와 형식에 의존할 때 갈등의 여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오직 한 절대로 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교회가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수호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읽으실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서신은 기독교 선언으로서 여러분 자신의 인간성에 대한 고백과 인간의 절망, 그리고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씌어지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항상 율법과 대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든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든지 인간은 율법 앞에서 절망과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에 인간을 위한 참된 소망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으실 때는 반드시 율법의 율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복음의 위대함을 대조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목사 (송탄교회)

나는 무력하오니

박 소혜 (중등부 교사)

대학부 1학년생인 내가 중등 2부 교사를 하게 되었다. 작년까지는 학생이었다가 처음으로 교사가 된 것이고, 게다가 내가 중2 때 계시던 많은 선생님들이 여전히 교회학교에 남아 계시서 기분이 참 어색했다. 교사를 하면서,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이었다. 정말 중등 2부 친구들을 마음에 품는 것은 말 뿐이고, 나는 한 영혼을 사랑할 능력, 아니 그것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마음조차 없었던 것이다.

중등 2부에서 내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열심히 일하지 않다가 아차 싶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또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조차 어려운 과제였던 수학만 한군데와 '시아 찬양의 밤' 등 여러 행사에서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사로 봉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아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학생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욕심이 생길 때가 있다. 이만큼만 더 해주면 더 되면 모았으면, 좀 열심히 따라주었으면, 조용히 해주었으면,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그런 노력들은 허사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계시며, 또한 끝까지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내년에도 교사를 맡게 되었는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으로 주시는 우리 학생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다. 그러나 나를 교사라는 자리에 세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로서 정말 기록한 산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을 언단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잘할 자신은 없지만, 내년에도 교사라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귀

문 성욱 (예배부 수화통역)

'주님은 문 앞에 계시지만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내가 열어야 합니다.'

어디에선가 보았던 예수님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하지만 그 문의 바깥 쪽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문을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마루에서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영의 귀를 열어(소리를 듣지 못하기)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예배마루는 언제나 통역자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마루의 모든 예배에서는 통역자가 예배마루 식구들의 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을 드릴 때도 수화 통역자의 손짓(수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통역자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손짓(수화)으로 전달되는 말씀이 끊깁니다. 통역자 혼자만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마루 성도 전체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통역자로 인해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역자들은 두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지도 예배마루의 귀가 되어 예배를 수화로 통역합니다. 그 때마다 저는 너무 떨립니다.

"나로 인해 이 분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지만 어쩌지? 다른 통역자들은 이 부분의 통역을 나보다 더 잘 표현했으면 텐데." 늘 걱정과 아쉬움이 납니다. 통역자들 서 부족한 수화 실력 때문에 항상 예배마루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절대 못 해요. 어시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통역을 하게 해 주세요. 저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고 말씀에 젖게 해 주세요. 저의 수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통역하고 예배 드리게 해 주세요. 제 수화를 보는 분들에게는 진리를 깨닫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예배마루 식구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은혜를 받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역자의 도움이나 수화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들, 예배마루 성도들은 통역자의 손짓(수화)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를 열어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가 이 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배마루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

모임

1.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30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베다니홀
2. 안수집사회 화요일새벽기도회
일시: 31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베다니홀
3. 전도위원회 총회 속회
일시: 오늘 10:10
장소: 전도위원회실

남녀전도회

1. 베드로 17지회 총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모임 장소

별세

1. 류연옥 집사
유동원 집사의 부인, 2교구 경복2구역 / 17일 별세,
19일 장례
2. 전설환 타교성도
전재숙 집사 부인, 안상식 집사의 장인, 5교구 개로
1-1구역 / 20일 장례, 22일 장례

1월 주일 및 수요일에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천안예배 (안수집사)	수요일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1	5	최대환	노광현	이병학	황영일	김영길	장영환	김은희	송정옥
	12	최무길	임무천	김광남	한승규	이홍석	이호일	김국자	이종숙
	19	안종옥	전홍용	이병옥	김환기	이인영	김은배	이현복	이현복
	26	김구형	이형수	이종섭	안동현	황희만	동방용운	김옥기	김성자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설교자	30(월)	31(화)	1(수)	2(목)	3(금)	4(토)	5(주일)
기도자	사광진	김단용	김영훈	위진량	김의환	김정수	장 훈
기도자	김단용	장광남	최대환	변해수	한만교	김정자	정현민
기도자							장해구

3. 김윤례 성도

고성기 집사 모친, 14교구 하안2구역 / 22일 별세,
24일 장례

주소변경

1. 박재동 안수집사 / 김영실 집사
관악구 봉천동 1004-36

교회 오시는 길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7세, 유아, 영유아를 위해)	본당
	IV 오후 1:00 (100대 주일예배)	본당
	V 오후 3:00 (노년회, 어르신들을 위해)	본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일예배	1:00 ~ 11:00 (오전 7:00 ~ 11:00)	본당
금요일예배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후 5:00	본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간	차량
교회성회	오전 11:00	버스: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강요성회	오후 10:30	버스: 금요일에 본당 앞 출발

기도원 차량 운행: 월 목요일 10:00 / 월 목, 목, 오후 7:00 (종교개혁일 제외)

성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김의철 김은희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윤인현 최대환 엄필성 강봉모 오정현
이 훈 남수주 정종석 김영길 문종구
조진제 김국구 최무길 김진제 이창호
차신숙 박영식 김광남 이영식 이하영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준 이국진
김교성 이수근 이윤진 안정숙 방종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상숙 교광환
김창호 위진량 김의환 김정수 장 훈

■ 전담전도사

- 정현희 송창희 윤인숙 한영준 권영식
홍순애 이숙주 김말자 안대순 김정연
조옥자 강덕원 김정진 장해구 최문실
전은희 김경순 김경자 이수경

■ 전담전도사

- 장기영 김기영 김기영 김기영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 전담전도사

- 김기영 김기영 김기영 김기영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 전담전도사

- 김기영 김기영 김기영 김기영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최은아

공동회로 모임이다

일시: 오늘 찬양예배 후
장소: 본당
의안: 2002 결산 및 2003 예산
참석: 세례교인 전원

사무장사 활용입니다

<2003년도 사무장사 활용요령>에 대해
사무장사 사정활용이 있습니다.
장소: 권사회의실(본당 114호)
시간: 매주목 (오전 9시 ~ 오후 4시)
기간: 2003년 1월 12일 까지

사랑부 차량봉사 모임

차량: 보통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봉사시간: 월요일 08:00 ~ 10:30, 12:30 ~ 15:00

차량안내부 봉사자 모임

2003년도 차량 안내부에서
남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국 ☎ 552-8200, 교406,
차량 안내부 ☎ 2048

경향전도회 여성중간년 모임

대상: 경향전도회 찬양으로 봉사하실 분
부서: 소프드노, 미도, 일도 각 약간명
문의: 일함식 안수집사 ☎ 011-307-3569

2003년도 전반기 장학생 신청안내

1. 선발대상

-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0년 12월 31
일 이전 등록자
- ②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학 중인 중 · 고 ·
대 · 대학원 · 신학대학원 학생
- ③ 공예학과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
석하여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
는 자

2. 신청기간

2002년 12월 22일(주일)부터
2003년 1월 12일(주일)까지 3주간

3. 신청장소 : 교육국

4. 문의: 교육국 ☎ 552-8200, 교472, 473

직원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서

윤진기(사무장) 겸 헌신소지자 1명
식당담당직원 1명(숙식 가능) 3명
산악인(투혼봉사단)

2. 자격

· 자필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당회장 추천서(타교인인 경우)

3. 제출 서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 총현교회 사무국 ☎ 552-8200

경향전도회

새 · 가 · 족 · 을 · 형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879	정수훈	1	장년2부	구원실(1)	888	김보옥	15	청년1부	장년실(19)
880	고은주	1	청년2부		889	김예경	15	장년1부	
881	전영원	3	장년1부		890	임예진	19	청년1부	임신실(10)
882	양이남	4	장년3부	장년대(13)	891	김혜정	19	대학부	이보신(1)
883	김종재	7	장년1부	김정록(1)	892	이민주	19	대학부	최윤경(19)
884	강도아	7	외신부	이미주(4)	893	지현	19	대학부	
885	배준동	8	청년1부	금옥연(7)	894	이진현	19	대학부	
886	예희정	14	청년2부	이유진(1)	895	서민지	19	대학부	
887	안봉자	14	청년2부	심무섭(19)	896	최은정	19	대학부	박성미(1)

※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교 2003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